

2020 Vol. 28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체의 응답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9종의 경제 분야 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진행하고 조사원 1명이 한 사업체를 담당하는 One-Stop Survey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통계 홈페이지(<http://www.narastat.kr/ieco>)나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에 문의하면 된다.

>> 경인지방통계청은 이미 언택트~!

코로나19 발병으로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미덕인 이 시대, 온라인 쇼핑, 배달앱, 키오스크 등 언택트(untact)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2019년부터 사업체 부문 통계조사를 비대면조사로 전환하고 절차화해서 그 효율성과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담당 직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e-mail, fax, CASI(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ing)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과 인력 등을 절감하고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응답자의 만족도까지 향상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과천 본부와 서울센터에 이어 수도권 전체 사무소까지 비대면조사를 확대하고 조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박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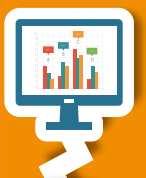


>> 오늘 마스크 가격은?

지금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안착하고 수급 상황이 개선되어 대부분의 약국에서 정가의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2~3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약국과 편의점부터 온라인 몰까지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졌다. 공급 부족과 사재기 현상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국가차원에서 긴급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통계청은 2월 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KF80)와 손소독제(의약품, 식약처 인증제품), 손세정제 3개 품목에 대한 온·오프라인 일일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기재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제공했다. 통계청의 마스크 일일가격조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성과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물가조사 담당직원들은 오늘도 묵묵히 조사현장을 누비고 있다. <통계세상기자단 박현정>



QUIZ



Q. 2020 경제통계통합조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무엇일까?

- ① 9종의 경제통계 ② One-Stop Survey
- ③ 인터넷 조사 ④ 2020 인구주택총조사

※ QR 코드나 포털에서 「우리세상 통계세상」을 검색해서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정답자 열 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억대 기부클럽, 경인지방통계청 7년 연속 소아암 후원

경인지방통계청 직원들은 2014년에 소아암 후원모임 '나아세'(나누면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나아지는 세상)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7년 동안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후원액은 총 1억1백여만원에 이른다.

올해 전달한 후원금 1천3백여만원은 만 21세 이하 소아암 및 난치성 혈액종양 질환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된다. 어린이 질병사망원인 1위인 백혈병소아암은 인종, 유전 등과 상관없이 인구 십만 명당 16명이 걸리지만, 제때 치료하면 완치율이 80%에 이르는 질환이다.

손영태 청장과 직원들은 따뜻한 나눔의 정이 소아암 아동들에게 전해져서 쾌유와 회복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김만희>



90년대생의 경영참여, 제3기 청년위원회 출범



경인지방통계청 '제3기 청년위원회'가 출범했다. 청년위원회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90년대생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조직 경영에 반영하고 기존 세대와의 공감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제3기 청년위원회는 12개 소속부서에서 선발된 8명으로, 열린 간부회의, 경영평가 회의, Jump-up 워크숍 등 조직경영 관련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선후배와의 소통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연구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기관에 제언하고, 통계발전과 정부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김만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역통계 교육

경인지방통계청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통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계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자를 대상으로 지역통계의 조사표 설계부터 통계 공표와 보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소개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주관한 지역통계과는 하반기에는 지역통계 전문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일선 행정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통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수도권 지역통계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균형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매진할 예정이다. 교육문의: 02-2110-7783

<통계세상기자단 이형록>



[통계특독] 국가통계와 지역통계

지역통계는 국가단위로 생산하는 국가통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시·도부터 읍·면·동 등의 행정 단위 구역별로 작성한 통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통계 목적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등 생활환경을 고려한 생활권, 역세권, 통학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역통계를 작성할 할 수도 있다.

통계청의 승인통계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591종의 지역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는 관내 69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지역 통계의 개발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계세상기자단 이호석>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기관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작성방법별		
			조사	보고	가공
계	425	1,201	527	476	198
정부기관	307	1,000	415	415	170
- 중앙행정기관	47	409	208	152	49
통계청	1	65	39	2	24
이외기관	46	344	169	150	25
- 지방자치단체	260	591	207	263	121
지정기관 (금융기관, 공사/공단 등)	118	201	112	61	28

(2020. 5. 31. 기준, 단위: 기관, 종)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응답자 초청간담회 실시

사회조사과는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 응답자를 정부과천청사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계부 쓰기과 전자가계부 입력시스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자 계획되었다. <통계세상기자단 박은영>



서울나눔 for you

서울사무소는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물품 기부를 통해서 개최한 점심 바자회의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앞으로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 사무소 봉사모임 “서울나눔 for you”를 중심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김인숙>



혈액금감에 “헌혈” 솔선수범

인천사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릴레이 헌혈 운동에 나섰다. 혈액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접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직원들이 한장씩 기부한 헌혈증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인천 지역의료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이담비>



장애인고용과 함께해요

수원사무소는 지난 5월 장애인 구직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사무소는 장애인 맞춤형 ‘현장조사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장애인공단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양혜미>



도전 통계조사원~

고양사무소는 지난 5월 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4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우수 현장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한 이번 과정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원서접수부터 면접 노하우에 대한 실무 교육도 실시하였다.

<통계세상기자단 김은경>



코로나19를 날려버리고 사랑을 채우다

성남사무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독거노인과 통계응답자 가구를 방문하여 방역을 하고 보건 마스크를 전달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활동도 펼쳤다. 성남사무소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최혜림>



지역농협과 함께 농업 현장으로

의정부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과수농가의 일손돕기에 나섰다. 지역농협과 협업해서 개최한 이번 행사를 통해 부족한 일손도 보태어 지역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통계세상기자단 김정훈>



정확한 농업통계 생산은 현장에서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는 농업면적조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 담당자의 업무 조기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역량진단 결과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노하우 전수를 위한 방향 설정과 사업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최명희>



구리사무소는 퇴직 선배와 함께하는 작물재배면적 조사를 실시했다. 농업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퇴직 선배들은 신규 직원들에게 작물 구별법, 재배면적 계산법과 같은 노하우를 현장에서 전수했다. 직원들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는 통계조사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했다.

<통계세상기자단 박두선>



통계청 가계부 실제로 써보니... feat. 솔직~ 담백~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국가정책 수립과 각종 연구 자료로 제공하는 소중한 통계자료입니다. 수원사무소는 정기적으로 관내 가계동향조사 응답자들의 솔직 담백한 의견을 청취해서 통계조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통계세상기자단 양혜미>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김○○님 (화성시 진안동)



지난 3월부터 석 달째 통계청 가계부를 쓰고 있다. 처음에는 통계청에서 왔다고 해서 의아했다. 무서운 세상이라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통계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전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몇 번씩 찾아와서 한 번만 써보라고 부탁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가계부는 젊었을 때 써보고 안 쓰다가 나이 들어 써보니 우리 집의 불필요한 지출을 알게 되고 가계에 소홀히 했던 부분도 발견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재밌었다. 통계청에서 너무 귀찮게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써볼 만했다. 무엇보다 소정의 답례품은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니 알뜰한 분들이라면 꼭 해볼 것을 추천한다.

●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 최○○님 (수원시 임북동)



(질문) 처음 통계청에서 가계부 기입을 요청했을 때 어떠셨나요?

(답변) 가계부 쓰는 게 번거롭고, 내 사적인 소비가 남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었다.

(질문) 지금 10개월 정도 쓰신 소감은?

(답변) 처음에는 영수증 모으는 게 잘 안되어 힘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 영수증 모아 전자가계부에 입력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되었다.

(질문) 이제 조사기간이 끝나는데 가계부는 계속 쓸 건가요?

(답변)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계청 전자가계부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써볼 생각이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답변) 주변에서 처음에는 '그런 거 왜 하나' 했는데, 이제는 '나도 해보고 싶다 소개해 달라'고 한다. 좋은 정책을 위한 통계조사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 보람도 느끼게 된다.



이런 책도 있어요!



건축물에서 기둥의 역할은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건물의 층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책의 저자 스티븐 스티글러는 통계학을 활용한 사례들을 조명하면서 통계학의 일곱 가지의 중요 영역을 기둥이라고 표현했다. 그 일곱 가지 영역은 '자료 집계' '정보 측정' '가능도' '상호 비교' '회귀' '설계' '잔차'이다. 여기에 여덟 번째 기둥의 존재를 언급하며 1층인 자료집계부터 아직 밝혀지지 않은 8층까지의 공통점은 통계학에서 큰 변화를 주는 요소이며 중요개념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개념서는 난이도가 쉬운 영역에서 어려운 영역으로 읽지만, 이 책은 과거에 활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통계학의 역사에서 통계의 개념을 끌어내는 설명 방식은 이 책을 통계학 이론서로 한편으로는 통계학 역사서로 만든다. <통계세상기자단 허경웅>

경인지방통계청 담당 지역

사무소	전화	담당지역
과천본부	02-2110-7600	서울 강남 11개 구,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서울사무소	02-6327-3904	서울 강북 14개 구
인천사무소	032-460-2500	인천광역시
- 부천본부	032-460-2700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사무소	031-232-6441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 평택본부	031-658-8317	평택시, 안성시
성남사무소	031-780-0600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 이천본부	031-640-9400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사무소	031-860-3501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사무소	031-936-5100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구리사무소	031-560-7000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2020 인구주택총조사란?

인구주택총조사(Census)는 특정 시점에 한 국가의 모든 사람·가구·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 자료를 수집·평가·분석·제공하는 전 과정으로 근대적인 인구조사는 1790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UN 회원국 중 227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통계 중 하나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대면 조사를 확대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 조사대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 조사일정: (비대면조사) 2020. 10. 15. ~ 10. 31.
(대면조사) 2020. 11. 1. ~ 11. 18.